

NEW PRODUCT · NEW TECHNOLOGY

첨단과학의 결실, 우리생활 이렇게 달라진다

팩스의 주고받기

방안에서 스케이트 지치기

초고속의 날씬한 카메라

다용도 캠코더

온실을 시원하게

비디오 박스

약속시간 감시용 시계

시간도 알고 메시지도 보내고

다재다능한 미니밴

땅을 밟히는 뜰라이트

소형차의 행렬

빗속에서 건조하게

막히지 않는 하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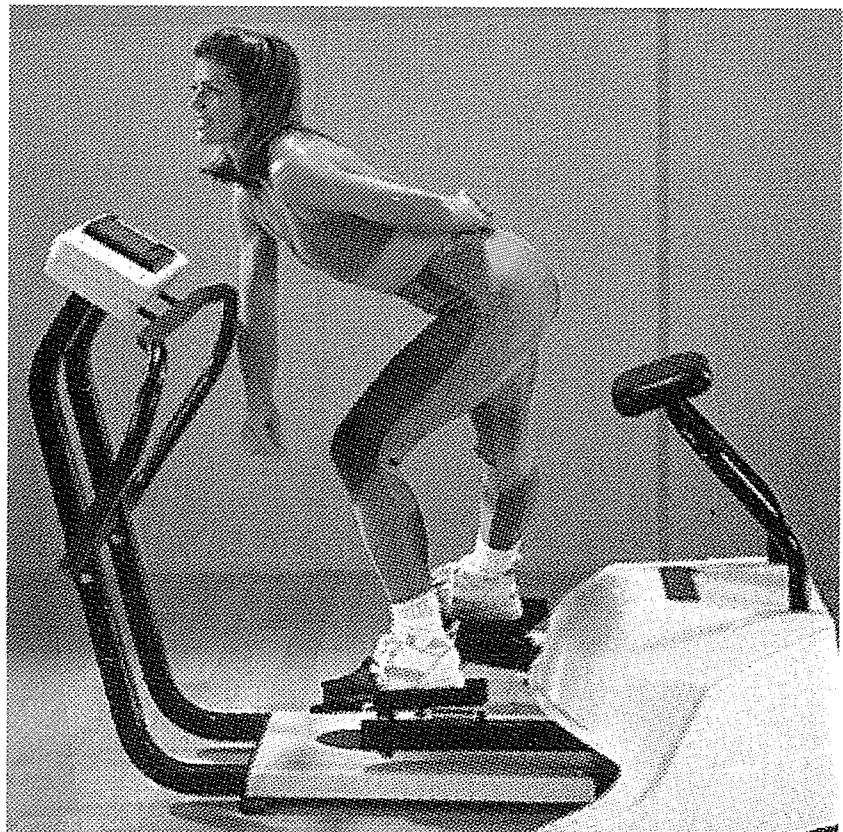
경제적인 쿠페

뜨거운 새

조용한 운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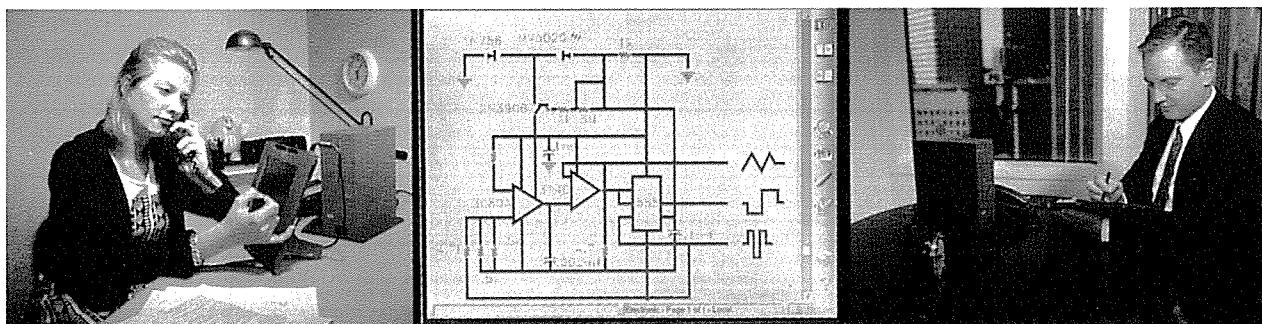
강력한 세단

새제품·새기술은
첨단과학과 일상생활에서의
부단한 연구결과의 소산이다.
본 난은 최근에 개발 보급되고 있는
새제품·새기술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게재한다.



방안에서 스케이트 지치기

'노틸러스'의 새로운 스케이트기계를 이용하면 충격받이, 헬멧 그리고 심지어는 스케이트 없이도 뉴욕의 센트럴 파크나 베스스비치 산책길을 돌아 다니는 기분을 복제할 수 있다. 이 기계의 활주페달은 훈련용 스케이팅을 모의할 수 있다. 값은 3천1백95달러. 제작소: Nautilus, One Nautilus Way, Huntersville, NC 28078, U.S.A.



팩스의 주고받기

휴렛-페커드사의 'HP 음니쉐어'를 사용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두사람이 동시에 각자의 스크린에서 같은 서류를 보면서 토의할 수 있다. 엔지니어, 법률가, 디자이너 그리고 카피라이터들은 재래식의 팩스기계나 또는 PC와 연결된 HP음니쉐어장치를 이용하여 함께 하나의 문헌을 가지고 작업을 개시할 수 있다. 메이커의 추정에 따르면 매주 10회의 팩스를 보내거나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절약되는 시간만으로 이 장치의 값인 2천5백95달러어치는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용하자면 이런 장치가 최소한 두개 필요하다.



대용도 캠코더

JVC사의 '시스테맥스'는 VHS-C에 대한 외부 스크린을 갖춘 캠코더의 기능을 가졌다. 이 다목적 레코더는 3인치 커버 디스플레이에 그림 메시지를 보여 주는 비디오 메시지기능을 가졌다. 시스테맥스(1천1백달러)용의 TV튜너(2백50달러)도 구입할 수 있다.

초고속의 날씬한 카메라

니콘의 35Ti카메라의 독특한 판독장치는 아날로그 디스플레이 디이얼과 포인터를 갖고 있다. 4개의 디이얼은 초점거리, 렌즈의 구경, 노광보정, 프레임 계수, 시간노출 그리고 셀프-타이머를 보여 준다. 초고속의 렌즈는 니코 광각 35mm f/2.8이며 피안더의 비구면(非球面)렌즈는 최고의 밝기와 컬러의 균형을 제공한다.



비디오 박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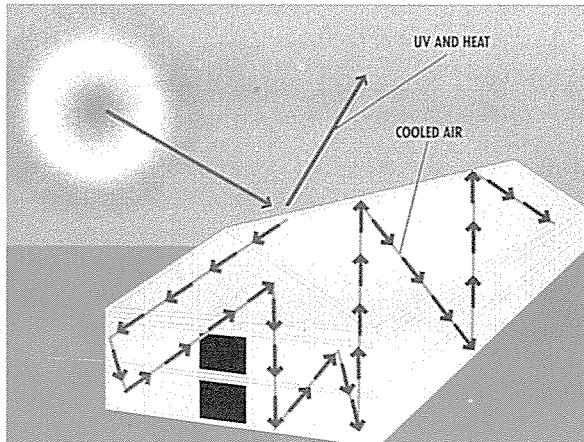
샤프사의 'QT-V1'은 비디오 CD를 틀 수 있는 최초의 휴대용 스테레오 시스템이다. 무게가 불과 14피운드(약 6.4kg)이기 때문에 가라오케 파티에 들고 다닐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또 AM, FM, 오디오, CD 그리고 카세트를 틀 수 있다. 'QT-V1'은 일본에서만 팔고 있다. 값은 5천8백달러.

온실을 시원하게

'쿨 라이트 390' 온실용 필름은 자연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전기가 엄청나게 비싼 지역에서 빛을 가로막지 않고 온실의 온도를 떨어뜨린다.

이 필름은 또 360-390 나노미터 범위의 자외선을 막아 일부의 해로운 균의 성장을 늦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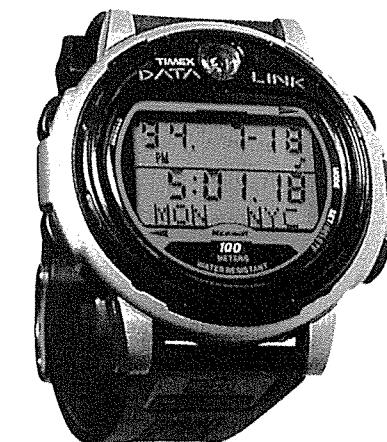
제작소: Klerks Plastic Products, Box 368, Richburg SC 29729, U.S.A.



시간도 알고 메시지도 보내고

다른 무선호출기보다 30%나 작은 지름 1.5인치 밖에 안되는 세이코사의 '메시지워치'는 팔목시계의 아름다움을 간직한채 무선호출기의 편리한 기능을 발휘한다. 내장된 FM라디오칩은 음성우편 통지, 지방스포츠의 점수 그리고 다른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 하루에 36번 미국표준국의 원자시계에 대해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이 시계는 어려 스타일과 색깔로 출품되고 있는데 값이 80달러에 월간 서비스료 11달러가 추가된다.

제작소: Seiko Communications of America, 1625 NW AmberGlen Ct., Ste. 140, Beaverton OR 97006, U.S.A.



약속시간 감시용 시계

타이맥스사의 '데이터 링크 워치'는 컴퓨터 스크린을 가로질러 번쩍이는 빛의 작대기를 이용하여 27건의 주간 약속, 관련 전화번호 그리고 기념일 알려주기를 불과 수초 내에 입력할 수 있다. 이 시계의 광센서가 번쩍이는 빛의 작대기를 읽고 정보를 시계에 일린다. 빛의 필스는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돌릴 때 사용하는 디지털의 1, 0과 같다. 1백30달러의 이 시계는 원도우즈 PC용의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된다.

땅을 밟히는 풋라이트

'더블헤더' 플래시라이트를 가지면 앞길뿐만 아니라 발을 옮기는 자리도 밝혀 준다. 내장된 보조용 빛은 땅을 조명하기 위해 아래쪽으로 회전하는 한편 1차등은 앞쪽을 비쳐 준다. 손잡이 속으로 움츠리면 보조등은 꺼진다.

25달러의 이 장치는 4개의 AA배터리를 사용한다.
제작소 : Phorm Concept + Design, 2007 W. Grand Ave., Chicago IL 60612,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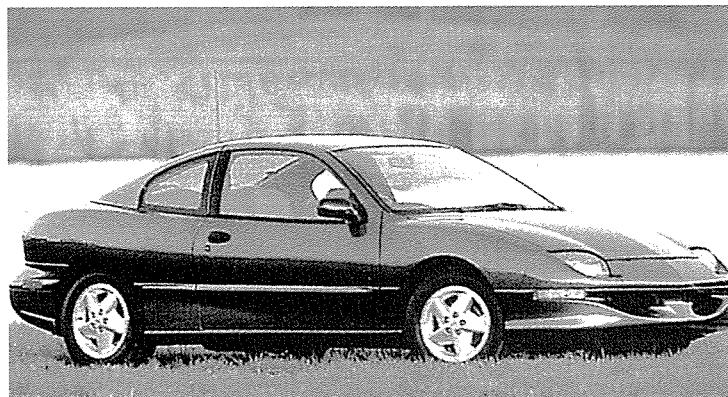
■ 대재다능한 미니밴

화물을 운반하려고 할 때 미니밴으로부터 뒷자리의 의자를 제거하는 것은 몹시 성가신 일이다. 혼다사의 어코드 모델을 바탕으로 만든 미니밴인 '오디시'는 최고의 해결책을 제공한다. 뒷좌석을 바닥 속에 접어 넣을 수 있다. '오디시'는 또 스테이션 왜건을 닮은데가 많다. 다른 미니밴보다 지면과 훨씬 가깝고 4개의 문짝을 갖추고 있다. 어코드의 2.2리터 16밸브 엔진을 갖고 있으며 소매가는 약 2만3천달러.



▲ 형 차의 행 릴

크라이슬러사는 4짜문의 소형세단차로서 처음에 클라이슬러 시리스, 다음에는 디자 스트래티스를 그리고 세번째로 플리미드 브리즈를 내놓았다. 브리즈는 수축이 가능한 하드탑과 독특한 스타일의 앞부분이 돌보인다.



경제적인 쿠페

폰티악 선파이어 쿠페는 1만1천2백25달러짜리 차에 표준 앤ти록 브레이크와 이중 에어백을 첨가했다. 이 SE쿠페는 120마력, 2.2리터 엔진을 장착했다. 또 컨버터블(지붕을 접어 넣을 수 있게 된 차)형 및 스포티한 GT형 차가 150마력 콰드 4엔진을 장착하고 곧 선을 보일 계획이다.